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www.gwangjufc.com

MAY 2016 No.3
www.gwangjufc.com



GWANGJU FC STAR

송승민, 성실함으로 무장한 광주의 날개

ROOKIES

광주발 태풍을 꿈꾸는 판타스틱 신인들

PREVIEW

6위권 진입을 위한 기를 만든다

5월 5일(목)

16:00



vs 상주 상무

5월 28일(토)

16:00



vs 수원FC



※ 본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주FC 4월 RECORDS

광주FC TOP SCORER



선수명	득점
정조국	5
김정현	1
송승민	1
조주영	1
홍준호	1



2016년 4월 K LEAGUE CLASSIC

5
경기

승 ■ 1
무 ■ 1
패 ■ 3

5 득점
8 실점

04.03		1-2 패	04.17		2-1 승
04.09		0-2 패	04.24		1-1 무
04.13		1-2 패			

광주FC TOP ASSISTER



선수명	도움
김민혁	4
송승민	1
이종민	1
조주영	1



2015년 광주FC 시즌 기록

	득점	도움	실점	슈팅	코너킥	파울	경고	퇴장
광주FC	1.29	1.14	1.57	8.14	4.14	17.0	2.42	총 0회
클래식 평균	1.29	0.94	1.29	11.66	4.27	13.24	1.85	총 3회



6위권 진입을 위한 기틀 만든다

광주FC가 차곡차곡 승점을 쌓으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이 순위를 이어가며 6위권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에 5월은 이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다.

광주는 7라운드까지 2승 2무 3패 승점 8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5위 상주 상무, 6위 수원 삼성과는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 골득실 차에서 밀려 7위가 됐다. 그러나 승점 차가 없는 만큼 충분히 순위를 올릴 기회는 있다.

광주가 순위를 올려야 하는 이유도 있다. 바로 그룹A 진출이다. 33라운드까지 치른 뒤 6위 안에 들어가 그룹A에 들 수 있다. 7위 이하는 강등 사투를 벌이는 그룹B로 간다. 그렇기에 지금의 순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승점을 계속 쌓아야 한다.

그런데 광주의 5월 상대가 만만치 않다. 광주는 성남FC, 상주, 전북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FC 순으로 경기한다. 이 중 초반 3경기인 성남, 상주, 전북전이 중요하다. 이 상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야 이어지는 인천, 수원FC 전 부담이 없어진다.

성남, 상주, 전북은 현재 광주보다 순위도 위다. 전력도 강하다. 그러나 축구는 해 봐야 한다. 또한 상대성이 있다. 객관적인 전력상 광주는 수원 삼성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 받지만, 7라운드에서 맞붙었을 때 결과는 1-1 무승부였다.

광주는 5골로 득점 공동 선두인 정조국의 득점포가 5월에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4도움으로 도움 공동 1위인 김민혁의 날카로운 패스 전개와 공격 지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이 공격을 주도하고 이종민, 홍준호, 이찬동 등이 후반에서 밝혀준다면 충분히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다.

부담스런 상대를 만나는 5월이지만, 광주에는 희망을 이루는 행복의 달이 될 것이다.

2016 K리그 클래식 중간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서울	18	6	0	1	16	5	11
2	전북	13	3	4	0	10	7	3
3	성남	12	3	3	1	11	8	3
4	제주	11	3	2	2	13	10	3
5	상주	8	2	2	3	10	13	-3
6	수원	8	1	5	1	9	10	-1
7	광주	8	2	2	3	9	11	-2
8	울산	8	2	2	3	6	7	-1
9	수원FC	8	1	5	1	5	7	-2
10	포항	6	1	3	3	7	9	-2
11	전남	6	1	3	3	6	8	-2
12	인천	3	0	3	4	6	13	-7

5월	경기 일정	5월 1일	16:00	vs 성남FC	원정
광주FC	5월 5일	16:00	vs 상주 상무	홈	
	5월 14일	14:00	vs 전북 현대	원정	
	5월 22일	16:00	vs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5월 28일	16:00	vs 수원FC	홈	



성실함으로 무장한 광주의 날개



성실한 선수를 싫어하는 지도자는 없다. 어떤 감독이든 팀을 위해 헌신하고 경기장 위에서 많이 뛰는 선수를 좋아한다. 거기에 기술까지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광주FC의 송승민이 그렇다. 공격수지만 실 새 없이 움직이며 공수에 걸쳐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 광주가 어떤 팀인가. 누구를 만나도 전방에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1명의 선수 모두가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해야 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송승민은 남기일 감독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송승민은 매 경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4월 13일에 열린 5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는 시즌 첫 득점포를 쏘아 올렸다. 김민혁의 패스를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연결해 서울의 견고한 수비진을 무너트렸다. 시즌 초반에는 득점이 터지지 않아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첫 골을 터트리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3년차, 광주에서는 베테랑이더라고요.”

송승민은 2014년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를 통해 광주에 입단해 승격 그리고 잔류 신화를 함께 썼다. 올해로 프로 3년차다. 아직까지는 배운 것보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은 연차다. 그러나 젊은 선수층을 자랑하는 광주에서는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한다. "광주는 팀 연령이 낮아요. 3년차는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팀에서는 연차가 높은 위치예요. 형들을 도와 신인 선수들을 이끌어야 돼요."

웃으며 말한 송승민은 동생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불과 2년 전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기에 그의 조언은 더욱 진심이 묻어난다. "신인 선수들이 경기를 못 나가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기를 안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깐요. 준비를 하다 보면 기회가 와요. 포기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준비를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해줘요."

“첫 골, 더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지난 시즌 송승민은 6월이 되어서야 첫 골을 기록했다. 공격수라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 조급할 수밖에 없다. 첫 골이 언제 터지냐에 따라 해당 시즌의 성패가 나뉘는 경우도 다반사다. 다행히 송승민은 올 시즌 첫 골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겼다. 부담감을 일찍 털어낸 덕분에 송승민의 몸놀림은 더욱 가벼워졌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다. "골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제 입장에서는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골이 나오지 않아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3년차인데 골이 늦게 들어간 감이 있어요. 골을 넣은 이후에는 스트레스들이 떨어져 나갔고 플레이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롤모델이 있다. 롤모델로 삼은 선수의 플레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방식을 몸에 익힌다. 송승민은 특별한 롤모델은 없지만 유럽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스널의 올리비에 지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페르난도 토레스 같은 선수들을 좋아해요. 신체조건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골 넣는 방법을 생각해요. 경기 전에 항상 영상을 보고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어느 포지션이든 상관없습니다!”

송승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멀티 플레이어다. 광주에서는 주로 측면에 위치하지만 높이와 기술을 활용해 최전방도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하다. "지금은 측면을 봐서 측면이 편한 것은 맞아요. 센터포워드를 봐도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포지션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정)조국 형이 혹시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 좋지 못하시면 제가 그 자리를 뛸 수 있죠."

올 시즌 광주의 공격진은 새 얼굴들로 채워졌다. 전방에는 베테랑 공격수 정조국이 영입됐고 2선에도 김민혁과 조성준이 새롭게 가세했다. 선발 공격진에서 송승민만이 유일하게 기존 자원이다. "처음에는 작년에 있던 선수가 저밖에 없어서 당황했죠. 나에게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선수들한테 맞추자는 생각을 했어요. 시즌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호흡적인 문제는 작년이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량 좋은 선수들이 와서 오히려 플러스가 됐어요."

특히 정조국에 대해선 "경험과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 많은 형이에요. 옆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의지할 때는 또 의지하고요. 정말 든든해요"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송승민의 목표는 꾸준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 소박해 보이지만 결코 이루기 쉬운 꿈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한 송승민이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반짝하는 선수가 아닌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오랜 시간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좋지만 일단은 꾸준한 선수, 팬들에게 그런 선수로 기억 됐으면 좋겠어요."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작년에 비해 관중수가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선수 입장에서는 관중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도 나면서 한 발 뛸 것을 두 발 뛰게 돼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축구,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에서는 야구가 유명하지만 광주 축구도 많이 찾아주세요. 책임감을 갖고 좋은 축구로 보답할게요!"



16
SONG SEUNG MIN
송승민

2015년 시즌 기록

-  경기 7  경고 1
-  득점 1  퇴장 0
-  도움 1
-  파울 15
-  피파울 11
-  슈팅 8
-  유효슈팅 3



생년월일	1992.01.11
신장/체중	186cm/77kg
포지션	미드필더
출신교	인천대
클럽경력	광주(2014~현재)

2016년 광주발 태풍을 꿈꾸는 FANTASTIC ROOKIES 4



No.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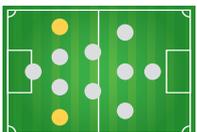
DF

정동윤

JEONG DONG YUN

1994.04.03 174cm/62kg
K리그 클래식 6경기 출전

정동윤은 오른쪽 측면 수비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오버래핑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플레이가 위협적이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팀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프로데뷔전을 치른 K리그 클래식 2라운드에서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됐고, 현재는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수비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2015 멘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 등을 지냈다.



No.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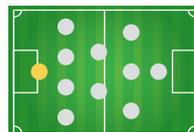
GK

윤보상

YOON BO SANG

1993.09.09 185cm/83kg
K리그 클래식 2경기 출전 2실점

윤보상은 184cm의 키에 재빠른 순발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대범함이 장점이다. 여기에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경기 운영을 견뎌 팀 전체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울산대의 전국체전 준우승을 견인했고, 멘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쳤다. 지난 6라운드 전남전을 통해 첫 출전했으며, 데뷔전에서 스테보의 PK를 막아내며 팀에 승점 3점을 선물했다.



올 시즌 광주FC에 실력 있는 신인 선수들이 가세했다. 바로 정동윤, 윤보상, 조주영, 홍준호다. 이들은 빠르게 프로 무대에 적응하며 팀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활약에 광주FC는 더욱 큰 힘을 얻었다.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주발 태풍의 주역이 될 신인 4인방을 소개한다.



No.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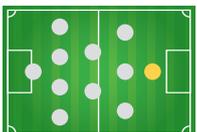
FW

조주영

JO JU YOUNG

1994.02.04 186cm/80kg
K리그 클래식 2경기 출전 1득점 1도움

조주영은 광주FC 유스 출신 공격수다. 금호고 3학년 때 신체 조건이 좋아지면서 기량도 덩달아 올라왔다.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U-18, U-19 대표팀을 지냈다. 순간 스피드를 내세운 움직임이 날카롭고 공간을 보고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좋다. 프로 데뷔 무대였던 6라운드 전남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렸고, 7라운드 수원전에서는 정조국의 골을 도와 1도움을 추가했다. 그가 교체투입으로 두경기에서 뒀던 시간은 38분에 불과해 미래 성장을 더욱 기대케 하고있다.



No.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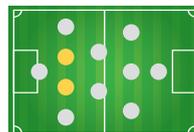
DF

홍준호

HONG JOON HO

1993.10.11 190cm/77kg
K리그 클래식 7경기 출전 1득점

홍준호는 192cm의 큰 키가 돋보이는 장신 센터백이다. 강력한 제공권을 기반으로 한 공중볼 처리 능력, 수준급의 수비 리딩, 패싱력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등 광주의 팀컬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주대 진학과 동시에 핵심 자원으로 기용됐고, 4년학대는 주장 완장까지 차며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뽐냈다. 2014 BTV컵 국제축구대회 대학선발로 나서 맹활약한 바 있다.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호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4 DF 웰링톤

1990.02.21 194cm/80kg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옴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0 FW 파비오

1986.10.04 171cm/66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윤

1994.04.03 175cm/70kg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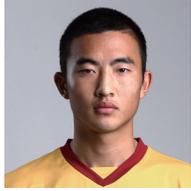
22 MF 조종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6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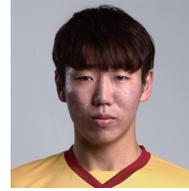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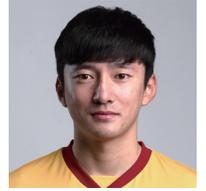
28 MF 김익신

1992.11.26 181cm/70kg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80kg

광주FC SNS 채널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5월 28일(토)
16:00

vs 수원FC

6월 19일(일)
19:00

vs 성남FC

6월 26일(일)
19:00

vs 전북 현대

7월 3일(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